

“챔피언스필드, 관람형 스포츠관광 잠재력 커”

광주전남연구원 외래 방문객 설문 결과



VII'(한국시리즈 11번째 우승)를 꿈꾸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챔피언스필드(이하 챔피언스필드)가 관람형 스포츠관광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방문객 10명 중 6명이 광주에서 숙박하고, 관광을 즐길 의향이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김광욱 책임연구원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6일까지 챔피언스필드 외래 방문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9.4%가 경기 관람 후 광주에서 숙박했다고 답했다. 또 54.1%는 '관광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평일에는 여성이 53.7%로 높은 반면 주말에는 남성이 53.9%로 많았다. 또 평일에는 2명씩 관람하는 비율이 66.0%로 높았고 주말에는 3~5명씩 관람하는 비율이 51.4%에 달했다.

원정팀의 연고지와 외래 방문객의 거주지 간 상관성이 높고 거주지 교통 환경에 따라 이용교통수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TX는 서울 거주 외래 방문객의 30.3%가 이용한 반면 대전과 대구 거주 외래 방문객은 전무했고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 거주 외래 방문객의 18.3%가 이용하는 반면 중부권인 대전은 44.4%가 이용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자가용 이용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높았지만 대구와 경기도가 각각 75.9%와 65.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선호 숙박시설도 달랐는데, 모델이용자의 62.7%가 남성이지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의 88.9%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경기 종료 직후 찾아가는 곳도 평일과 주말에 따라 비율이 달랐다. '집과 숙소로 바로 돌아간다'는 응답자가 평일에는 72.8%, 주말에는 52.3%에 달했다. 경기장 인근 호텔

집을 찾는 비율에서는 평일에 9.5%인 반면 주말에는 23.3%로 높여져 대조를 보였다.

세대별로 소비 금액과 관광 의향도 차이가 났다. 20대는 62.7%가 지출액이 10만원대였고, 56.8%는 관광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20만원대가 53.2%로 가장 높았고 30만원대가 21.3%에 달했으며, 69.0%가 관광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연세 관례가 가장 적극적인 세대로 나타났다.

경기 관람 다음날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는 광주 근교 도시(16.4%)가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는 40대는 5·18유적지(29.6%)를 첫손에 꼽았고, 20대는 동명동(17.9%), 충장로(16.4%), 1913송정역시장(14.9%) 순으로 '광주 핫플레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김 연구원은 "관람형 스포츠관광의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주와 인근도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고 세대별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다른 만큼 경기일, 원정팀, 날씨 등 여러 조건과 상황에 맞게 세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단기적으로는 기존 관광정보를 야구팬의 취향과 동선에 따라 편집해 재배치하는 넛지(nudge) 전략을 중장기적으로는 프루야구 관람형 스포츠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외래 방문객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밝혔다.

주춘성 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광주시의 대표 SNS(사회관계망 서비스)가 19일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소셜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의 비영리 단체인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의 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한 기업·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7회째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블로그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을 비롯해 지난해 트렌드를 반영한 인스타그램까지 개설하는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소통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소셜기자단', '1인 미디어 프렌드', '파워블로그 캠퍼'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광주의 도시브랜드와 정책현장을 직접 취재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편 전문가의 시선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SNS로 자리매김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소셜기자단 100명은 활동을 시작한 올해 3월부터 총 1만8506건(9월 말 기준)의 콘텐츠를 생산(산출)확산시켰다. 그 결과 광주시 SNS는 최근 3년간 친구수가 5만1500여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양질의 SNS 콘텐츠 생산을 위해 1인 영상 창작자를 활용한 영상 제작, 마을공동체와 협업을 통한 캠퍼 투어 추진 등 소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정찬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광주시 SNS에 보내주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정신과 매력을 함께 나누는 소통공간이자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경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은 19일 서울 JW컨벤션에서 열렸다.

서은홍 기자

동구, 아트마켓 공동예술두레장터 개최

광주 동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공동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아트마켓 '공동예술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과 28일, 11월 4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동예술두레장터는 공동장터, 예술장터, 두레장터 등 3개 장르로 구성된다.

공동장터는 골동품 및 고미술품을 체험·전시·판매하는 재미장터와 7080 추억의 놀이터, 먹거리장터, 골동품 경매장 등이, 예술장터에는 예술길 화가전, 상주작가 작업실 탐방, 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두레장터에서는 예술길 상인 및 예술관련 셀러 장터와 먹거리부스, 트리아트 포토존 등이 진행된다.

서구, PC방 내 음식조리 판매행위 지도점검

광주 서구가 오는 21일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을시설제공업소 이른바 PC방 내 음식 조리·판매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서구 내 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184개소이며 이 중 음식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함께 영업신고된 PC방은 17개소이다.

영업자가 직접 식품개봉 후 조리행위를 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대다수 PC방 영업자가 식품조리행위 시 영업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PC방 내 음식 조리·판매행위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계도하여 기간 내 영업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각종 인·허가업무 분야 감사 실시

광주 남구는 19일 "인·허가 민원업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구청 내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내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업무의 처리 과정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진행된다.

감사 대상 부서는 회계과를 비롯해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공민복지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등이다.

남구는 2개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북구 중흥2동, 제2회 간뎃골 영화제 개최

광주 북구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문순)는 오는 21일 평화프라자 앞 주차장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대중 문화한미당 행사와 함께 '제2회 간뎃골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간뎃골 영화제'를 통해 마을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주민배우, 감독 및 관객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에 이번 영화제자를 주관한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시나리오 선정과 함께 오디션을 통해 주민배우 15명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주민배우들은 6세(2011년생)부터 78세(1939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등 그만큼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었다.

광산구, 국민권익위 초청 기업 옴부즈만 회의

광주 광산구는 권익위 국민권익위 기업옴부즈만 초청 현정회의를 지난 18일 평동비즈니스센터에서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기업만족도 전국 1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는 기업대표 등 60여 명과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기업대표들은 국유지 분납 매수 기간 동안 공장 증개축을 못하는 문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사항 17건의 해결을 건의했다. 권익위 기업옴부즈만은 "건의 사항은 제도개선 권고 권한 등을 활용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정병희 도의원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규제 완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사유료 납부기한을 사용허가 신청시

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신중히 검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 시작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해 사용료를 당초 50%에서 90%를 반환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정병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례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자가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년 848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효인(71085-2630138)
최후주소 : 전남순천시 신원로길5,45동
102호(신계동, 주공아파트)

위 망 이효인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20일

공고인:유동순, 이강기.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길 4, 414호(유림정비점과)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0월 16일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7. 12. 21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양도상속증여
- 기업진단
- 기장대리
- 법인설립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용
동센터 30동 217호(공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점·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